

인터뷰 영종·을왕 '장수콜택시' 김성기 대표



영종·을왕콜 택시중 69명의 기사분들이 어르신들의 무료 택시운행 서비스인 '장수콜택시' 운행 봉사에 참여해 지역 어르신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주민이 애용하는 ‘택시’ 돼야죠”

교통약자 위한 무료 서비스 ‘콜아웃제’ 기사 불친절 방지

영종국제도시는 대중교통이 열악하다. 면적이 넓다보니 자가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다. 공항철도도 도심의 지하철도에 비해 늦게 첫차(5시 30분)를 운행한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그동안 영종국제도시에서 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는 영종도 운행 택시의 폭리(?)와 불친절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영종·을왕콜은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는 김성기 대표를 만났다.

—간 섬 밖으로 나갈 때 왕복통행료를 내야하는 불편이 많았다.

“현재 택시가 손님을 모시지 않고 빈차로 섬 밖으로 나가는 경우 통행료를 먼저 받습니다. 하지만 섬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손님의 탑승에 관계없이 통행요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영종도에서 손님을 태우고 나가는 경우 대부분의 택시들이 왕복통행료가 포함된 가격을 손님과의 협의해 운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손님들의 불만이 많았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섬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택시 미터 요금으로 운행합니다. 다만 통행료와 돌아오는 거리 등을 감안해 콜비(3000원)만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기사분들의 불친절이 도마위에 오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현재 영종도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대략 250대 정도입니다. 서

비스 교육을 해도 수입이 열악한 상황이라 기사들이 자주 바뀌는데 올해 들어서 서비스평가 ‘콜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분의 불친절이 명확하다면 일정기간 해당기사의 콜전용 단말기(TRS)를 정지시킵니다.”

—최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수콜택시는 저희 회사에서 제안해서 영종국제도시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등 4개동에 65세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시는 서비스입니다. 각동에서 20분씩을 추천받았고 매월 5장의 이용권을 드리죠.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장수콜택시에 대한 구청의 지원이 있는지.

“어르신들은 무료로 이용하지만 구청에선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사들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죠. 현재 69명의 기사가 동참하고 계십니다.

—스마트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플랫폼의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영종국제도시에도 수요응답형콜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인데 택시업계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절반 이상 손님이 줄었습니다. 구청의 지원으로 차량 소득제로 매일 수차례 소득도 하는 상황이지만 유동인구가 줄다보니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교통수단의 합법화 또 콜버스가 정식적으로 운행되면 더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택시업계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취재본부=김정근 기자 mirex@

광주시, 방호복 재고량 ‘적신평’

민간업체 등 확보방안 강구해야

대구 상황으로 추가지급 받지 못해 보유하고 있는 방호복 1000세트 뿐 ‘환자 증가시 제대로 대응 못 할지도’

광주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의심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송요원 등을 감염에서 보호할 방호복 재고량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 2곳과 격리시설 등 총 5곳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 시설을 운영할 의료진과 구급·보안요원 등이 착용할 레벨D급의 방호복세트는 재고가 많지 않은 상태다.

방호복세트는 보호안경(고글)과 장갑, 방호복, 덧신, 마스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회용이다.

광주가 보유하고 있는 방호복 수량은 1000세트이며 동·서·남·북·광산구 5개 자치구도 각각 200~300세트 정도 보유하고 있다.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는 직원은 5개 구청 입구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의료진 등이다.

지난 23일 이후 광주에서는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각 구에서 하루 10~20세트 정도가 소진되고 있다.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송요원까지 착용하기 때문에 하루평균 30~40세트가 사용된 뒤 버려지는 것으로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24일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직 공무원들이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시민과 상담하고 있다. /뉴스1

알려졌다.

하지만 증상을 보이는 의심 환자가 급증해 전남대·조선대병원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수용이 안 될 경우 감염전담병원을 가동해야 해 방호복 수량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음압병상은 14개 뿐으로 현재 7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감염전담병원과 보호시설 등 5곳에서 활동하는 의료진과 안전·행정요원 등에게 하루 최소 200세트를 지급하면 현 재고량으로는 1주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최소 5000~1만세트를 보유하면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 한달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정부에 방

호복 등을 요청했지만 대구 상황이 급박해 지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더 발생하면 방호복 등이 부족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바라지 말고 민간업체 등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9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명은 퇴원, 7명은 전남대·조선대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발열 등의 증상으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한 시민은 632명이 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상주시 88억 투입,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FTA에 따른 과수 농가 경쟁력 ↑ 지역농협 지도·감독아래 추진

경북 상주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자유무역협정(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7대 주요 과수(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분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지주 및 비가림시설, 관정·관수관비

시설, 우량 품종 갱신, 재해예방시설 등 16개 사업이다.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8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FTA 체결에 따른 과수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사업 참여자는 경북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조직(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등 9곳)에 신청한 2089명 중 ‘상주시 과수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1

일 1427명이 확정됐다.

이 농가들은 지역농협의 교육과 지도·감독 아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윤해성 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과수분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들이 국비로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외 시장에서 상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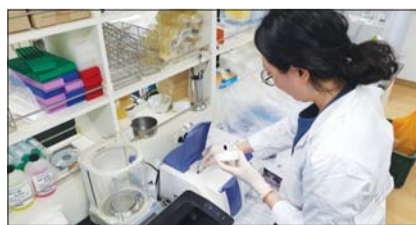
보성군, 농가 대상 부숙도 컨설팅 추진

다음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보성군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컨설팅 지원 및 사전검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영향을 받는 보성군 축산 농가는 총 478농가이며 이 중 컨설팅을 신청한 농가는 421농가로 약 88.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70농가 에 대



보성군은 퇴비부숙도 의무화 제도에 앞서 부숙도 컨설팅·사전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 부숙도 사전 검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오는 3월 24일까지 전체농가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전남=문성환 기자 m8527188@

고흥군 드론 소독방역 실증

고흥군이 드론을 활용해 소독방역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인력 및 차량 중심의 소독 방식에서 탈피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방법이 필요해졌다.

이에 군은 천풍 무인 항공기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방역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김용환 기자 jiiacecom@

오늘의 날씨

2월 26일(수)
음력: 2월 3일

수도권 날씨
3 ~ 11°C

운중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09 | 해질 / 18:22

연천 1/10, 동두천 1/10, 가평 0/10, 양평 3/11, 용인 4/12, 평택 3/12, 수원 4/12, 인천 3/9, 서울 3/11, 파주 2/10, 백령도 4/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